

1. 파놉티콘, 벤담에서 푸코까지

- “한 명의 간수가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 미국의 독립으로 영국 죄수들의 처리 문제가 영국의 국가적 문제로 대두
- 파놉티콘의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을 내화(內化)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 벤담의 파놉티콘은 건물주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설감옥이자 공장형 감옥.
ex. 정부의 보조금, 죄수의 노동력
- 이것은 당시 영국에서 추진하던 공공 감옥, 격리식 감옥과 정반대의 형태. 이러한 이유로 벤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811년 영국 정부는 파놉티콘을 포기.

2. 푸코의 ‘감시와 처벌’

- 푸코에게 있어 파놉티콘은 사설 감옥의 의미를 넘어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
- :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 처벌은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수행.
- ‘통제와 권력의 비대칭적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놉티콘.
- “감옥이 공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감옥을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by 푸코 → 우리의 사회가 거대한 파놉티콘(감옥)이다.
- 파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 확대
ex)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Big Brother)’(1984) → 정보 사회의 ‘전자 파놉티콘’

3. 전자파놉티콘

-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감시 형태가 발생.
 - 1) 컴퓨터 DB: “데이터 감시(dataveillance)”
ex. 한국의 전자주민카드(1995)
 - 2)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CCTV, 휴대폰 카메라…)
 - 3) 생체인식을 통한 감시(지문, 홍채, 얼굴모양, 정맥…)
 - 4) 국가 기관에 의한 감시(FBI, 국정원…)
 - 5) 사설 기관에 의한 감시(심부름센터, 탐정)

이러한 새로운 감시를 ‘전자 파놉티콘’이라 부른다.

- 전자 파놉티콘은 벤담의 파놉티콘에서 시선(gaze)의 역할(규율과 통제)을 정보가 담당한다.

다음 장에 계속...

- 전자 파놉티콘(전자 감시) vs. 고전적 파놉티콘(벤담)

1) 둘 다 불확실성에서 공통적이다.

= 피감시자가 감시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2) 고전적 파놉티콘에서는 시선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전자 파놉티콘은 정보의 수집에 있어 한계가 없다(국가적, 전지구적).

3) 전자 파놉티콘의 경우,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 수퍼파놉티콘, 역파놉티콘, 시놉티콘(Synopticon)

- 수퍼파놉티콘: ‘감시를 당하는 사람이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ex. 클레리타스 社의 소비자 DB

: 미묘하고, 협력에 기초하며, 강제가 없이 느슨하게 퍼져있는 통제의 네트워크가 현대 사회의 통제의 특성.

- 역파놉티콘: 파놉티콘을 이용해 권력자를 견제하는 새로운 통제의 메커니즘. ex. 멕시코 반군의 네트워크

- 시놉티콘(Synopticon): 인터넷과 같이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감시하는 언론의 발달을 정의한 개념. By 매티슨

이 중에서 역파놉티콘과 시놉티콘은 ‘역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놉티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푸코의 규율사회를 벗어난 새로운 통제 사회다. 규율사회에서 증기기관과 공장이 지배하며 요란한 구호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였지만 통제 사회는 컴퓨터와 기업이 지배하고 숫자와 코드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다.” By 질 들뢰즈

정보 파놉티콘이나 전자 파놉티콘을 가능케 하는 정보기술이 동시에 시놉티콘이나 역파놉티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것은 우리의 지속적인 실천과 노력이다.

끝.